

강압어휘규칙을 배제한 영어 통제구분 분석

정재창
(서남대학교)

Jung, Jae-Chang 2001. An Analysis of The English Control Construction without Coercion Lexical Rule.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92), 99-12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control theory without Coercion Lexical Rule that was set up to deal with control constructions with 'be allowed to' structure. Pollard & Sag(1994) insisted that such unsaturated phrases as 'to be allowed to' complements require coerced interpretations when they occurred as complements of control expressions. However, it can make Coercion Lexical Rule unnecessary to utilize the passive lexeme structure in the interpretation of 'to be allowed to' complements and to accept the revised control theory suggested by Asudeh(1988). Manning and Sag(1997, 1999) explained binding theory with ARG-ST(Argument Structure). The analysis of control construction with ARG-ST will make it possible to solve an entangled sentence in which there come out binding relation, passive construction, and control construction in one sentence. **(Seonam University)**

1. 서론

'통제(control)'란 전통적으로 문장 내에서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논항들이 음성적으로 실현된 다른 논항들에 의지하여 그 의미가 해석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러한 현상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통제구분이란 부정사구에서 명시되지 않은 주어와 상위문의 주어나 목적어가 되는 구문을 말한다.¹⁾

1) 한편 Chomsky(1980)는 통제의 유형을 주어통제, 보충어통제, 그리고 구체적인 통제자가 없는 임의적통제로 분류하였다.

(1) It is unclear [what [PRO to do]].

(1)의 PRO는 통제규칙에 따라 임의적 지시를 갖게 되며 임의적통제의 보기이다. 임의적 지시(arbitrary reference)란 일종의 통칭적 지시로 지시적 지시(deixis referent)를 갖지 않는 일반적 대상을 지시하는 관계를 말한다.

- (1) a. Jimi promised Mary to be allowed to get himself a new dog.
 b. Leslie persuaded/asked the teacher to be allowed to leave early.
 c. *The teacher was persuaded/asked (by Leslie) to be allowed to leave.

(1)의 'be allowed to'가 포함된 통제구문을 Pollard & Sag(1994, 이하 P&S-94라 표기함)의 통제이론이 강압어휘규칙(Coercion Lexical Rule)을 이용하여 설명한 데에 반하여, 이 논문은 강압어휘규칙을 사용하지 않고 설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2) a. Kim promised Lee to be allowed to go.
 b. Kim asked Lee to be allowed to 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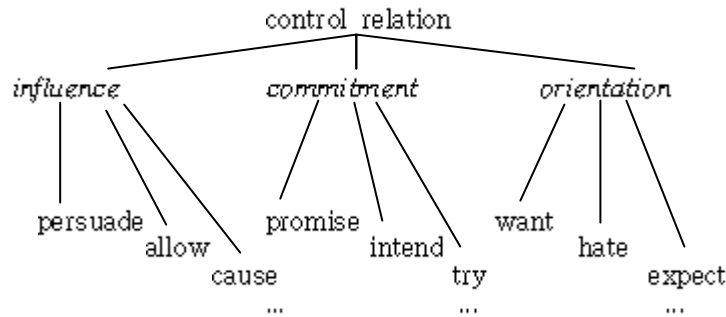
(2)에서 promise는 주어통제 동사(약속형)이고 ask는 목적어통제 동사이므로 (2a)에서는 to be allowed의 주어가 Kim이어야 하고 (2b)에서는 to be allowed to go의 주어가 Lee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로 promised의 경우는 Lee가 주어로 해석되고 asked의 경우는 Kim이 주어로 해석된다. 이러한 현상을 P&S-94에서는 정상적인 통제자 선택이 다른 보어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의미해석의 강요된 적응(coerced reconciliation of interpretation)에서 오는 특수한 의미변화의 현상으로 파악한다. 이 때 약속의 대상행위가 되는 to be allowed to에 사역적 의미가 추가되는 의미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즉, to cause X to be allowed to로 전환된다고 본다.

그러나 필자는 allow가 어휘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논항이 수동형 allowed에서는 서로 교체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으로 간주하여 이 구문이 특수한 의미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1)의 'be allowed to'의 구문을 포함하는 통제구문을 분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핵어문법의 수동형, 결속이론, 통제이론에 대한 기제(mechanism)의 도입이 필요하다. 최근에 핵어문법(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의 논문 Manning and Sag(1997, 1999)에서는 결속이론을 ARG-ST(Argument Structure)에서 정의했고, Asudeh(1998: 88)는 그 논항구조를 기반으로 통제이론을 수정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핵어문법의 수정된 이론을 바탕으로 'be allowed to'의 구문을 포함하는 통제구문이 강압어휘규칙이 사용되지 않고서 분석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2. P&S-94 통제이론

P&S-94 통제이론²⁾의 기본적 기제(mechanism)는 포화되지 않은 보충어(unsaturated complement)의 나타나지 않은 주어(unexpressed subject)와 통제자 사이의 동지표(coindex)를 가정한다. 또한 통제관계를 위계로 분류하고 통제동사들을 그 의미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3) 통제관계 분류 위계(Sortal hierarchy of control relations)



영향형(*influence*) 동사 *persuade*의 어휘목록은 다음 (4)와 같다.

(4) *persuade*

PHON <persuade>										
SYNSEMLOC [CAT: SUBCAT ₃ <NP ₁ NP ₂ VP[inf, SUBCAT<NP ₂ >: 3]										
<table border="1"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100%;"> <tr> <td style="padding: 5px;">CONTENT</td> <td style="padding: 5px;"> <table border="1"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100%;"> <tr> <td style="padding: 5px;">RELATION <i>persuade</i></td> <td style="padding: 5px;"></td> </tr> <tr> <td style="padding: 5px;">INFLUENCE</td> <td style="padding: 5px;">①</td> </tr> <tr> <td style="padding: 5px;">INFLUENCED</td> <td style="padding: 5px;">②</td> </tr> <tr> <td style="padding: 5px;">SOA-ARG₀</td> <td style="padding: 5px;">③</td> </tr> </table> </td> </tr> </table>	CONTENT	<table border="1"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100%;"> <tr> <td style="padding: 5px;">RELATION <i>persuade</i></td> <td style="padding: 5px;"></td> </tr> <tr> <td style="padding: 5px;">INFLUENCE</td> <td style="padding: 5px;">①</td> </tr> <tr> <td style="padding: 5px;">INFLUENCED</td> <td style="padding: 5px;">②</td> </tr> <tr> <td style="padding: 5px;">SOA-ARG₀</td> <td style="padding: 5px;">③</td> </tr> </table>	RELATION <i>persuade</i>		INFLUENCE	①	INFLUENCED	②	SOA-ARG ₀	③
CONTENT	<table border="1"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100%;"> <tr> <td style="padding: 5px;">RELATION <i>persuade</i></td> <td style="padding: 5px;"></td> </tr> <tr> <td style="padding: 5px;">INFLUENCE</td> <td style="padding: 5px;">①</td> </tr> <tr> <td style="padding: 5px;">INFLUENCED</td> <td style="padding: 5px;">②</td> </tr> <tr> <td style="padding: 5px;">SOA-ARG₀</td> <td style="padding: 5px;">③</td> </tr> </table>	RELATION <i>persuade</i>		INFLUENCE	①	INFLUENCED	②	SOA-ARG ₀	③	
RELATION <i>persuade</i>										
INFLUENCE	①									
INFLUENCED	②									
SOA-ARG ₀	③									

2) 보다 자세한 내용은 Pollard & Sag(1994:285-296)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3) 핵어문법 II까지 사용하는 하위범주화 자질을 말한다.

4) 이 SOA-ARG₀라는 속칭의 유형은 관계와 역할에 있어서 역할의 담당자를 정하는 것이 구체적이지 못할 경우에 매개사태(parameterized state of affairs)가 그 담당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다.

이 유형 동사의 의미는 통제동사가 포함하고 있는 VP의 표출되지 않은 논항의 의미관계를 명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매개사태(parameterized state of affairs)로 파악하여 분석한다. 이 사태(state of affairs)는 세 가지의 의미역, 즉 INFLUENCE(행위를 하도록 영향을 주는 자), INFLUENCED(INFLUENCE에 영향을 받는 참여자), 그리고 SOA-ARG(INFLUENCED가 행동하도록 영향을 받는 행위)를 갖는다. 영향형 동사 persuade는 INFLUENCE를 주어로 취하고 INFLUENCED를 직접목적어로 취하며, INFLUENCED가 취하는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부정사구를 보어로 취한다. 이 때 부정사구의 의미상 주어는 영향을 받는자인 INFLUENCED와 일치하며 목적어통제에 해당한다. (4)의 CONTENT의 우측에 표시된 지표값은 CAT의 SUBCAT 목록에서 해당하는 논항과 지표값이 동지표되어 나타남으로 이 유형의 의미분석이 명시적으로 설명될 수 있도록 한다.

핵어문법의 통제이론은 의미역에 토대를 두고 있어서 의미역기반 통제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Manzini의 일반화를 수용하여 SUBCAT 요소가 reflexive가 되도록 하여 선행 NP와 반드시 동지표가 되게 한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여 P&S-94에서는 통제이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5) P&S-94의 통제이론

불포화구(unsaturated phrase)의 CONTENT가 매개사태(parameterized state of affairs)내의 SOA-ARG이고, 그 관계가 통제관계이면, 그 구의 주어 SUBCAT 요소는 i)재귀사이고, ii)통제관계의 *influence, commitment, orientation* 유형에 따라서, 그 매개사태 내의 INFLUENCED, COMMITTOR, EXPERIENCER의 값과 각각 동지표(coindex)된다.

위와 같은 형식에 따르면, 의미 값이 통제원리를 따르는 동사는 표현되지 않은 주어가 reflexive인 VP 보어를 선택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나타내는 다양한 SUBCAT 목록은 (6)과 같다.

5) Manzini의 일반화: 표현되지 않은 주어를 가지는 문장내 비주어인 VP보어들은 그 보어를 포함하는 최소절(minimal clause)내에서 통제자를 가져야 한다. (P&S-94: 298)

- (6) promise: [SUBCAT<NP_i (NP), VP[SUBCAT<NP:refl>]>]
 persuade: [SUBCAT<NP, NP_i, VP[SUBCAT<NP:refl>]>]
 appeal: [SUBCAT<NP, NP[to]_i, VP[SUBCAT<NP:refl>]>]
 try: [SUBCAT<NP_i, VP[SUBCAT<NP:refl>]>]
 want: [SUBCAT<NP_i, VP[SUBCAT<NP:refl>]>]

(6)에서 나타난 SUBCAT 목록은 전적으로 통제이론에 의하여 결정된 동지표를 나타낸다. 또한 각각의 하위범주화된 VP에서 표현되지 않은 재귀주어(reflexive subject)는 사성(obliqueness)⁶⁾이 더 격은 요소와 동지표가 되도록 요구하는 결속이론의 원리 A를 준수한다. 사실 국부적 사성통어(local o-command)⁷⁾의 정의는 통제된 보어(controlled complement)가 SUBCAT 목록상에서 국부적 사성결속자(local o-binder)를 반드시 갖도록 하는 것이다. 동사의 하위범주화목록은 어떠한 명사구가 해당 절(clause)에서 실현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통제를 받는 주어는 그 주어를 포함하는 최소절 내에서 통제지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Manzini의 일반화가 올바른 예견을 할 수 있는 것은 통제이론과 결속이론 원리 A가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 논문은 논항구조를 기반으로 통제이론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핵어문법에서 수용하고 있는 변화를 조감하고 통제이론의 설명에 필요한 기제의 개념을 정확히 해야 한다. 그러므로 논항구조, 연계이론, 논항구조와 항가자질의 분리에 대하여 점검한다.

3. 연계이론

연계이론(linking theory)이란 술어의 논항이 의미적인 함의에 의하여 논항구조에 사상(mapping)되는 일련의 제약에 관한 이론이다. 핵어문법 II 이후 핵어문법의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새로운 자질인 논항구조

6) 보어와 술어동사의 관련성 정도를 사성이라고 부른다. 즉 보어요소가 동사에 얼마나 기울어 졌는가를 나타낸다. 영어의 사성의 정도(degree of obliqueness)는 동사의 수식어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사성목적어(부정사, 과거분사, 문장, 등), 전치사구, 간접목적어, 주어, 호격의 순으로 격다.

7) 핵어문법은 이 사성의 위계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결속이론을 설명한다. 하위범주화 값의 두 구성 요소 중에서 사성이 격은 요소가 사성이 큰 요소를 국부적으로 사성통어(locally obliqueness-command)하며, 하위범주화목록에서 더 사성이 격은 요소가 왼쪽에 위치한다.

(ARG-ST)의 출현이다. Borsley(1989)는 하위범주화목록을 이용한 표면항가(surface valency)의 설명에 많은 결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주어, 보충어, 명세사의 항가자질로 하위범주화목록을 대체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실제로는 P&S-94의 하위범주화목록이 항가자질과 논항구조로 분리되게 되었다. 논항구조와 항가자질의 분리에 따라 논항구조는 음성적으로 실현되는 자질인 항가자질을 표현하는 위치인 동시에 의미부에서 술어가 사상하는 논항의 위치를 담당하는 상면(interface)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통사론 중심의 이론에서 통제이론을 설명할 때에 PRO를 설정하여 부정사의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주어를 표시해 설명하였던 것에 비교하여,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논항구조를 이론 내에 설정하는 것은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논항도 논항구조에 명세할 수 있게 되었다.

3.1. 논항구조

술어(predicate)는 참여항(participant)들의 관계를 표현한다. 이러한 참여항들을 술어의 논항(arguments)이라고 부른다.

- (7) a. The director placed the document in the drawer.
 b. She defended the proposal.
 c. The committee laughed.

(7)에서 술어들은 각각 placed, defended, laughed인 동사들이다. (7a)의 the director, the document 그리고 in the drawer는 각각 placed 논항의 하나와 대응이 된다. 마찬가지로, (7b)에서 she와 the proposal은 defended의 두 개 논항에 대응이 되고, (7c)에서 the committee는 laughed의 단일 논항에 대응이 된다. 이로써 술어가 논항의 수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복합 논항구조에서 한 논항이 다른 논항을 완전히 포함할 때 전자가 후자를 포함한다. 그래서 <a ...<b...>>와 같은 논항구조에서 a의 논항구조가 b의 논항구조를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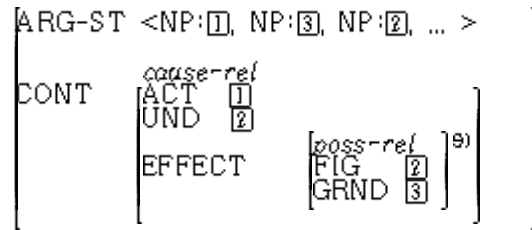
이와 같이 이러한 논항의 정보가 문법성의 설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함에 따라 핵어문법 III에서부터 논항구조를 ARG-ST라는 하나의 자질로 이론에 포함시키고, 다양한 의미역 위계를 핵심 논항과 사정 논항의 형태로 ARG-ST에 반영하여 통제이론을 설명한다. 이제 술어의 어휘의미부에서 의미적 역할이 ARG-ST에 사상되는 연계에 대하여 논의한다.

3.2. 연계

연계란 술어의 의미구조에서 CONT의 원형역할 속성 값이 그 술어의 ARG-ST의 특정 목록과 구조공유를 하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연계의 규칙성은 다중전수위계(multiple inheritance hierarchy) 내에서 어휘부호들에 대한 일련의 제약들로 다루어 질 수 있다. Davis(1996)는 어휘의미표시 가운데 존재하는 원형역할(proto-roles)⁸⁾ 사이의 제약을 사용하여 연계의 모형을 핵어문법의 틀 안에서 제시하였다. 술어의 CONT 값 내에서 원형역할의 속성들은 의미적 함의(semantic entailment)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연계에 대한 제약은 어휘적인 의미론에 밀접하게 의존한다.

이제 연계유형의 보기를 고찰하고 그 결과를 고찰한다. 다음은 영어의 이중목적어 유형제약이다.

(B) *ditrans-Is*



8) 원형역할(proto-role) 속성과 그들의 연관된 함의(entailment)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proto-role	원형역할과 연관된 함의
ACT	인과적으로 다른 참여자에게 영향을 준다. 의지적으로 사건에 참여한다.
UND	인과적으로 다른 참여자에게 영향을 받는다. 상태의 변화를 겪는다.
FIG	다른 참여자와 더불어 움직인다. 다른 참여자를 소유한다.
GRND	다른 참여자가 통과하는 길. 다른 참여자에 의하여 소유된다.
EFFECT	다른 사건에 의하여 야기되는 사건이나 상태이다.

9) Davis(1996)는 *poss-re*의 어휘의미관계를 가정하면서 Pinker(1989)의 제안을 수정하여 GRND의 값이 소유자(possessor)를, FIG 값이 소유되는 대상(possessed)을 표시하도록 했다.

(B)에서 이중목적어를 사용하는 보편적인 문장, I gave her a book을 예를 들어 적용하여 보면, ARG-ST에서 NP:①, NP:③, NP:④는 순서대로 I, her, a book의 논항을 표시하게 된다. 동시에 *cause-rel*에서 I는 ACT로 a book은 UND로 동지표 표시되고, *poss-rel*에서 a book은 FIG로 her는 GRND로 각각 동지표 된다. 이와 같이 연계는 논항의 통사적인 실현이 전적으로 의미적인 역할에 의존함을 보여준다.

3.3. 항가자질과 논항구조의 분리

Borsley(1989)가 하위범주화목록을 다중 항가목록(valence list)으로 분리할 것을 제안했을 때 우리는 그가 하위범주화목록을 대체하려고 의도했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표면항가(surface valency)와 기초를 이루는 논항구조 사이의 구별을 고려할 때, 하위범주화목록에 대한 역할은 어휘부호의 논항을 표현한 것이다.¹⁰⁾ 그러므로 이러한 속성을 ARG-ST로 이름을 바꾸는 것은 자연스럽다. ARG-ST는 논항목록과 항가목록이 다양하게 일치됨으로서 항가목록 값이 실제의 주어, 보어, 명세사와 일치한다.

ARG-ST는 하나의 층(stratum)이 아닌 하나의 수준(level)¹¹⁾이다.

10) Borsley(1989)는 SUBCAT목록이 그 자체로서 생명력을 갖지 못하여 항가자질과 SUBCAT를 모두 설정하는 것은 잉여적이므로 SUBCAT목록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자유로운 *pro-drop*과 같은 항가자질 축소의 과정을 SUBCAT 목록과 항가목록 사이에서 non-canonical 관계를 허용함으로써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어 문장 (a)에 대하여 '목적어 *pro-drop*'을 허용하는 격결한 어휘유형을 (b)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b)에서 *pro*가 상실된 목적어 NP는 표면에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COMPS 목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mita*가 두 개의 핵심 논항을 갖는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SUBCAT목록에서 그것은 여전히 나타난다.

(a) Naoki-ga mita
Naoki-NOM see-PAST
'Naoki saw(it).'

(b)
$$\left[\begin{array}{l} \text{SUBJ} < \text{[NP[nom]} > \\ \text{COMPS} < > \\ \text{SUBCAT} < \text{[1], NP[pro]}_r > \\ \\ \text{CONT} \left[\begin{array}{l} \text{see-rel} \\ \text{ACT} \quad i \\ \text{UND} \quad j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Ladusaw(1988)는 두 개의 가설을 제안하였다. 첫째는 어떤 이론의 일치 체계가 다중의 수준(level)와 단일 층(stratum)의 분석을 요구하는 것이고, 둘째는 다중의 층과 단일 수준의 분석을 요구하는 것이다. Ladusaw(1988)의 제안은 일치체계의 분석은 다중의 구조가 요구되는데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핵어문법은 Ladusaw(1988)의 첫 번째 가설에 해당하는 다중의 수준과 단일 층의 분석 방법을 이용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고, 변형문법의 경우는 두 번째 가설인 다중의 층과 단일 수준 분석을 이용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핵어문법에서 ARG-ST를 문법의 틀 내에 포함시키는 것은 하나의 수준을 첨가하는 것이 되므로 핵어문법의 기본적 방향 중의 하나인 단층적인(monostratal) 이론에 위배됨이 없다.

4 논항구조기반 통제이론

P&S-94에서 사용한 SUBCAT이 ARG-ST로 바뀌면서, Manning & Sag(1997, 1999)는 ARG-ST라는 수준에서 결속이론을 정의했다. ARG-ST는 어휘의미부와 통사부 사이의 연계로써 구성됨으로 통사적, 의미적 논항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므로 ARG-ST는 허사(expletive)적 대명사와 같은 의미적으로 관련이 없는 통사적 논항과 대명사 탈락 언어(*pro-drop language*)에서 탈락한 대명사와 같은 통사적 항가자질에 있어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 의미적 논항들을 포함한다.

4.1. 수동형 파생유형

어휘규칙에 대한 파생유형의 장점은 계층적인 어휘부(hierarchical lexicon)에서 파생이 합병되도록 허용하여 파생유형이 어휘부의 나머지로부터 전수되게 하는 것이다. P&S-94에서는 수동어휘규칙을 사용하여 수동문을 분석하였으나, Manning and Sag(1999)는 타동사 어휘소(*transitive verb lexeme*) 유형의 자질구조가 수동파생어휘소(*passive verb lexeme*) 유형의 자질구조로 사상하는 파생유형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11) level은 strata와 비교를 위해서 '수준'으로 번역한다.

Manning and Sag(1997: 6)이 수동형의 '보편적 특징(universal characterization)'으로 제시한 파생유형은 (9)와 같다.

$$(9) \left[\begin{array}{l} \text{passive-drv} \\ \\ \text{RESULT} \left[\begin{array}{l} \text{pass-v-form} \\ \text{ARG-ST} \langle \text{[2]}, \langle \text{[1] PRO}_j \rangle \oplus \text{[3]} \rangle \\ \text{CONT} \text{ [4]} \end{array} \right] \\ \\ \text{SOURCE} \left[\begin{array}{l} \text{trans-v-form} \\ \text{ARG-ST} \langle \text{[1] [2]} \rangle \oplus \text{[3]} \\ \text{CONT} \text{ [4]}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9)는 논항구조가 중첩형(nested)이다. 그리고 논리주어를 포함하는 전치사구 by-phrase는 더 이상 ARG-ST에서 사성이 가장 적은 목록이 아니다. Manning & Sag(1997)이 'ARG-ST의 첫 번째 요소는 논항주어이다'라고 제안한 논항주어는 수동태를 설명하는 데는 결정적이다. 그런데 P&S-94의 통제이론은 Visser의 일반화를 설명하였는데 이와 같은 수동형 파생유형을 수용할 때에도 역시 설명이 가능한 것인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4.2. Visser의 일반화

Visser의 일반화란 '주어통제(subject control)동사는 수동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P&S-94에서는 (10)과 (11)의 문장을 수동어휘규칙(passive lexical rule)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 (10) a. Kim was persuaded to leave(by Dana).
 b. [SUBCAT<NP_i, VP[SUBCAT<NP:refl>], PP[by]>]
- (11) a. *Kim was promised to leave(by Dana).
 b. [SUBCAT<NP, VP[SUBCAT<NP:refl>], PP[by]>]

(10)의 동사는 목적어통제동사이고 NP:ref_i는 선행하는 NP로부터 통제를 받어서 정문이 되어 정문을 정문으로 판정한다. (11)의 동사는 주어통제 동사로 NP:ref_i가 선행하는 NP로부터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동지표된 NP가 선행하지 않아 NP:ref_i이 통제를 받지 못하여 비문이 된다. 이상은 P&S-94의 설명 방법인데 이 논항의 순서는 Manning & Sag(1997)이 제시한 수동형 파생유형의 순서와는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다음 (12)는 Manning & Sag이 제시한 수동형 파생유형의 논항 순서를 따르는 경우인데, 수동형 문장을 정문으로 바르게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12)는 논리주어를 다른 사성 보어 앞에 위치하도록 하여 설명하는 방법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 (12) a. The puppy_i was given to her_j by Mary_j's uncle.
 b. *given: [SUBCAT<NP_i, PP[to]_j, PP[by Mary_j's uncle]_k>]
 c. given: [ARG-ST<NP_i, PP[by Mary_j's uncle]_k, PP[to]_j>]

(12b)는 P&S-94의 설명방법이고, (12c)는 수동형 파생유형을 따르는 설명방법이다. (12b)의 구조가 되면 비문인데 그 이유는 사성이 적은 PP[to]가 소유격인 NP mary를 논항통어하기 때문이다. 비대명사인 Mary가 PP[to]에 의하여 논항통어되고 동지표되기 때문에 그것은 논항결속된다. 그러면 결속원리 C를 어기게 된다. 왜냐하면 결속원리 C는 비대명사 유형의 명사류 대상물이 논항결속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12c)에서는 논리주어를 포함하는 PP[by]가 PP[to]를 선행하고, Mary가 PP[by]의 NP 논항에 내포되었기 때문에, Mary는 더 사성이 많은 PP[to]를 국부적으로 논항결속 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명사 her는 결속원리 B를 위반하지 않으므로 (12c)를 ARG-ST로 가정하는 (12a)의 문장은 문법적이다.

그러면 이제 다시 수동형 파생유형을 적용하여 주어통제동사가 포함된 수동형 문장을 올바르게 판정할 수 있는가를 살펴본다.

- (13) promise(passive):
 [ARG-ST<NP_i, <PP[by]_j, PRO_k, VP[ARG-ST <NP:ref_i>]>>]

(13)에서 주어통제동사인 promise 동사를 수동어휘소에 적용하여 (14a)와 (15a)에 적용하면 각각 (14b)와 (15b)가 된다.

- (14) a. *Kim_i was promised to leave by Kim_i,
 b. [ARG-ST<NP_i, <PP[by]_i, PRO_i, VP[ARG-ST <NP:refl_i>>]]
 (15) a. *John_i was promised to leave by him_i,
 b. [ARG-ST<NP_i, <PP[by]_i, PRO_i, VP[ARG-ST <NP:refl_i>>]]

(14)와 (15)의 문장들은 Manning & Sag이 제시한 수동형 파생유형의 논항순서를 따라서 설명을 하는데 비문인 문장들을 정문으로 판정한다. 즉 PP[by]_i가 NP:refl_i를 선행하여 통제함으로 정문으로 판정하여 올바른 결과가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이 P&S-94의 통제이론은 Manning & Sag이 제시한 보편적 수동형 파생유형을 수용할 때 전혀 Visser의 일반화를 설명하지 못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PP[by]_i가 통제자 역할을 할 수 없다면 NP:refl_i를 통제해 주지 않아서 비문을 비문으로 판정할 수 있을 것이다.

4.3. 논항구조기반 통제이론

Asudeh(1998)는 PP[by]를 사성 논항으로 분류하여 통제자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핵어의 두 가지 새로운 자질인 핵심(core) 논항과 사성(oblique) 논항을 제안한다. 그래서 핵어는 핵심과 사성 논항을 기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16) Feature Declaration

$$\text{head} \left[\begin{array}{ll} \text{CORE} & \text{list(synsem)} \\ \text{OBLIQUE} & \text{list(synsem)} \end{array} \right]$$

이 자질을 HEAD 자질로 만든 것은 그들이 HFP에 의해서 핵자범주(head daughter)로부터 모범주로 전수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두 개의 목록 내용은 AGR-ST와 구조공유하는 것으로 어휘적으로 (17)과 같이 명세된다.

$$(17) \left[\begin{array}{l} \text{trans-v-beam} \\ \text{CAT} \quad \vee \\ \text{SPR} \quad < \quad > \\ \text{ARG-ST} \quad < \boxed{1}\text{NP}, \boxed{2}\text{NP} > \oplus \boxed{3} \\ \text{CORE} \quad < \boxed{1}, \boxed{2} > \\ \text{OBLIQUE} \quad \boxed{3} \end{array} \right]$$

파생유형은 ARG-ST를 변경시킬 수 있는 것처럼, 핵심 역할을 바꿀 수 있다. 이제 수동형 파생유형은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도록 (18)과 같이 적절히 수정될 것이다.

$$(18) \left[\begin{array}{l} \text{passive-drv} \\ \text{RESULT} \left[\begin{array}{l} \text{pass-v-beam} \\ \text{ARG-ST} \quad < \boxed{2}; \boxed{5}, < \boxed{1}, \boxed{5} > \oplus \boxed{3} > \\ \text{CORE} \quad < \boxed{2} > \\ \text{OBLIQUE} \quad < \boxed{1} > \oplus \boxed{3} \\ \text{CONT} \quad \boxed{4} \end{array} \right] \\ \text{SOURCE} \left[\begin{array}{l} \text{trans-v-beam} \\ \text{ARG-ST} \quad < \boxed{1}, \boxed{2} > \oplus \boxed{3} \\ \text{CORE} \quad < \boxed{1}, \boxed{2} > \\ \text{OBLIQUE} \quad \boxed{3} \\ \text{CONT} \quad \boxed{4}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18)에서 핵심 역할만이 표면주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Manning & Sag(1997: 6)이 수동형의 '보편적 특징(universal characterization)'으로 제시한 새로운 수동 논항구조에서는 PRO를 사용하였으나 Asudeh(1998: 75)는 내포되지 않은 ARG-ST의 한 요소와 구조 공유(structure share)되는 CONTENT 대상물을 갖도록 제안하였다. 우리는 X[CONTENT $\boxed{4}$]를 표기하기 위해서 X: $\boxed{4}$ 의 표준핵어문법의 표기 협약을 사용한다.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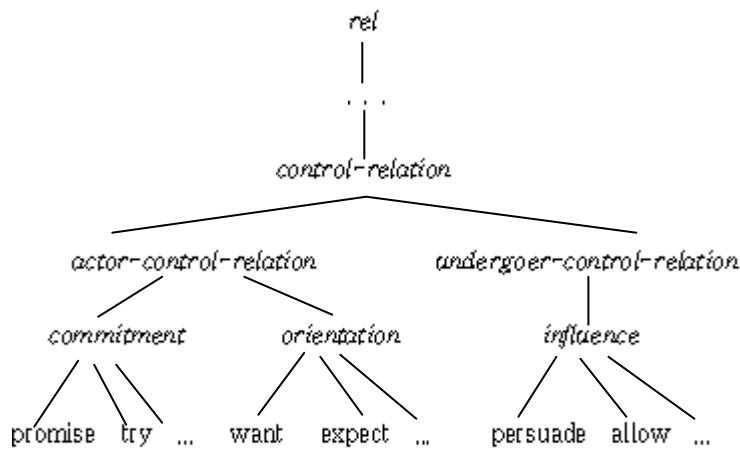
의 경우에서 y 는 정수 5로 예시되어 있다. 지표(index)는 CONTENT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동지표(coindexation)는 잉여적이다. 즉, CONTENT값의 구조공유는 INDEX값의 구조공유를 함의한다. 하지만 우리는 명확함을 위하여 아래에 적은 지표들을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Asudeh(1998: 88)는 논항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통제이론을 개정하였다.

(19) 통제이론

불포화구(unsaturated phrase) Y 의 CONTENT가 통제관계의 의미적 역할(a semantic role)의 값이면, Y 의 첫 번째 핵심 역할은

- i) 재귀사이고,
- ii) Y 내부에 존재하는 핵심 역할이 아닌 핵심역할과 동지표 되고,
- iii) *actor-control-relation* 혹은 *undergoer-control-relation*의 통제 관계 유형에 따라서, ACTOR 혹은 UNDERGOER 값과 각각 동지표(coindex) 된다.

(20)



(20)에서 우리는 *control-relations* 위계에서 그 내용이 *relation*인 어휘항 목에 이 통제이론을 제약으로 부과한다. 그리고 통제관계 위계에 주어통제와 목적어통제에 대한 통제로 제한한다. (19)의 통제이론은 P&S-94 통제

이론 이후로 핵어문법이 연계이론을 정립하여 이론 내에 반영하기 때문에 연계이론이 일반화되어 제시한 ACTOR와 UNDERGOER의 역할을 통제이론에 수용하였다.

(19)의 통제이론은 *control-relation*의 하위유형인 CONTENT 값을 갖는 어떤 어휘목록이 통제이론의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보장함으로써 통제이론이 적절히 적용되도록 한다. 이 통제이론에 따르면 주어 통제동사 *promise*와 목적어 통제동사 *persuade*의 관련 목록은 각각 (21), (22)와 같다.

(21)

$$\left[\begin{array}{l} \textit{promise-verb} \\ \text{ARS-ST} \langle \text{NP}_s \text{ NP}_i \text{ VP} [\text{CORE} \langle \text{NP}_{i \text{ref}} \dots \rangle] : \text{I} \rangle \\ \text{CORE} \langle \text{NP}_s \text{ NP} \rangle \\ \text{CONTENT} \left[\begin{array}{l} \textit{promise} \\ \text{ACTOR} \quad i \\ \text{UNDERGOER} \quad j \\ \text{X-ARG} \quad \text{I}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22)

$$\left[\begin{array}{l} \textit{persuade-verb} \\ \text{ARS-ST} \langle \text{NP}_s \text{ NP}_i \text{ VP} [\text{CORE} \langle \text{NP}_{i \text{ref}} \dots \rangle] : \text{I} \rangle \\ \text{CORE} \langle \text{NP}_s \text{ NP} \rangle \\ \text{CONTENT} \left[\begin{array}{l} \textit{persuade} \\ \text{ACTOR} \quad i \\ \text{UNDERGOER} \quad j \\ \text{X-ARG} \quad \text{I}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21)과 (22)에서 (19i)는 VP의 최대 논항주어인 처음의 핵심 역할이 재귀사이므로 만족된다. (19ii)는 재귀사가 *promise*의 핵심 목록의 한 요소와 동지표됨으로 만족한다. (19iii)는 재귀사와 통제동사의 적절한 의미역할과 동지표됨으로 만족한다. *promise*는

*actor-control-relation*이므로 ACTOR인 NP와 재귀사가 동지표될 것을 요구한다. (21)은 그러한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22)도 UNDERGOER인 NP와 VP의 처음 핵심 논항과 동지표될 것을 나타내고 있다.

4.4. 강압어휘규칙

P&S-94의 *to be allowed to leave*에 대한 해석은 대략 'to cause X to be allowed to leave'의 해석으로 강요(*coerce*)되며, P&S-94의 의미기반 원리와 일치하여 내포된 *psoc*의 적절한 참여자와 식별이 되는 것은 삽입된 원인자(*interpolated causer*)라고 주장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P&S-94에서 채택한 접근방법은 강요에 영향을 주는 어휘 규칙 (23)이다. 이러한 어휘 규칙은 통제동사의 보어에 대한 해석이라기 보다는 통제동사에 대하여 강압적으로 해석하여 의미를 분석한다.

(23) 강압어휘규칙(Coercion Lexical Rule)

$$\begin{array}{c}
 \left[\begin{array}{l}
 \text{CATEGORY|SUBCAT} \langle \dots, \text{VP|SUBCAT} \langle \text{NP}_{\text{M}} \rangle \text{:} \textcircled{2}, \dots \rangle \\
 \text{CONTENT} \quad \left[\begin{array}{l}
 \text{RELN } \textit{commitment} \vee \textit{influence} \\
 \text{SOA-ARG } \textcircled{2}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
 \downarrow \\
 \left[\begin{array}{l}
 \text{CATEGORY|SUBCAT} \langle \dots, \text{VP|SUBCAT} \langle \text{NP} \rangle \text{:} \textcircled{3}, \dots \rangle \\
 \text{CONTENT|SOA-ARG} \quad \left[\begin{array}{l}
 \text{RELN } \textit{i-cause} \\
 \text{INFLUENCE } \textcircled{1} \\
 \text{SOA-ARG } \textcircled{3}
 \end{array} \right]
 \end{array} \right]
 \end{array}$$

(23)에서 삽입된 사역관계(*the interpolated cause relation: i-cause*로 표시)는 *influence* 유형으로 가정한다. 이 관계는 항상 INFLUENCED 속성으로 명세화 된다. (23)의 어휘규칙은 *promise*의 어휘형태인 (24)에 적용되어 (25)의 결과로 나타낼 수 있다.

(24) *promise*

	CATEGORY	SUBCAT <NP ₁ (NP ₁)VP [SUBCAT <NP ₁ >:②]>								
CONTENT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order: none; padding-right: 10px;">RELN</td> <td style="border: none;">promise</td> </tr> <tr> <td style="border: none; padding-right: 10px;">COMMITTOR</td> <td style="border: none;">①</td> </tr> <tr> <td style="border: none; padding-right: 10px;">COMMISSÉE</td> <td style="border: none;">④</td> </tr> <tr> <td style="border: none; padding-right: 10px;">SOA-ARG</td> <td style="border: none;">②</td> </tr> </table>	RELN	promise	COMMITTOR	①	COMMISSÉE	④	SOA-ARG	②
RELN	promise									
COMMITTOR	①									
COMMISSÉE	④									
SOA-ARG	②									

(25) promise (coerced)

	CATEGORY	SUBCAT <NP ₁ (NP ₁)VP [SUBCAT <NP ₁ :neg>:③]>																	
CONTENT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order: none; padding-right: 10px;">RELN</td> <td style="border: none;">promise</td> </tr> <tr> <td style="border: none; padding-right: 10px;">COMMITTOR</td> <td style="border: none;">①</td> </tr> <tr> <td style="border: none; padding-right: 10px;">COMMISSÉE</td> <td style="border: none;">④</td> </tr> <tr> <td style="border: none; padding-right: 10px;">SOA-ARG</td> <td style="border: none;">[</td> </tr> <tr>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 padding-right: 10px;">RELN</td> <td style="border: none;">i-cause</td> </tr> <tr>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 padding-right: 10px;">INFLUENCE</td> <td style="border: none;">①</td> </tr> <tr> <td style="border: none;"></td> <td style="border: none; padding-right: 10px;">SOA-ARG</td> <td style="border: none;">③</td> </tr> </table>	RELN	promise	COMMITTOR	①	COMMISSÉE	④	SOA-ARG	[RELN	i-cause		INFLUENCE	①		SOA-ARG	③
RELN	promise																		
COMMITTOR	①																		
COMMISSÉE	④																		
SOA-ARG	[
	RELN	i-cause																	
	INFLUENCE	①																	
	SOA-ARG	③																	

(24)의 VP보어의 표현되지 않은 주어의 지표는 (24) SUBCAT 주어 지표이며 COMMITTOR의 지표인 ①이어야 한다. (23)의 어휘규칙은 명확하게 이 지표를 언급하여 어휘규칙의 결과인 (25)에서 promise의 SOA-ARG 내의 INFLUENCE 논항이 동사의 주어와 동지표될 것을 표시처럼 요구한다. 이와 같은 어휘규칙이 persuade와 같은 동사에 적용될 때 그 어휘규칙 입력부가 다른 통제할당 원리에 종속되므로 내포된 INFLUENCE 논항은 목적어 NP와 연관이 된다. 이와 같이 P&S-94에서는 어휘규칙의 도움을 받아서 수동형이 포함된 통제문형을 설명한다.

(25)의 강압어휘형태가 수동어휘규칙에 적용되면 그 결과는 (26)의 어휘형태일 것이다.

(26) promised(coerced and passivized)

CATEGORY SUBCAT-<NP ₁ VP[SUBCAT-<NP _i refl>:③],PP[by]④>																					
CONTENT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left: 20px;"> <tr> <td style="padding-right: 10px;">RELN</td> <td style="padding-right: 10px;"><i>promise</i></td>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td> </tr> <tr> <td>COMMITTOR</td> <td>①</td> <td rowspan="2"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td> </tr> <tr> <td>COMMISSÉE</td> <td>④</td> </tr> <tr> <td>SOA-ARG</td> <td>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left: 10px;"> <tr> <td style="padding-right: 10px;">RELN</td> <td style="padding-right: 10px;"><i>i-cause</i></td> <td></td> </tr> <tr> <td>INFLUENCE</td> <td></td>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①</td> </tr> <tr> <td>SOA-ARG</td> <td></td>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③</td> </tr> </table> </td> <td></td> </tr> </table>	RELN	<i>promise</i>		COMMITTOR	①		COMMISSÉE	④	SOA-ARG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left: 10px;"> <tr> <td style="padding-right: 10px;">RELN</td> <td style="padding-right: 10px;"><i>i-cause</i></td> <td></td> </tr> <tr> <td>INFLUENCE</td> <td></td>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①</td> </tr> <tr> <td>SOA-ARG</td> <td></td>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③</td> </tr> </table>	RELN	<i>i-cause</i>		INFLUENCE		①	SOA-ARG		③	
RELN	<i>promise</i>																				
COMMITTOR	①																				
COMMISSÉE	④																				
SOA-ARG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left: 10px;"> <tr> <td style="padding-right: 10px;">RELN</td> <td style="padding-right: 10px;"><i>i-cause</i></td> <td></td> </tr> <tr> <td>INFLUENCE</td> <td></td>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①</td> </tr> <tr> <td>SOA-ARG</td> <td></td> <td style="border-right: 1px solid black;">③</td> </tr> </table>	RELN	<i>i-cause</i>		INFLUENCE		①	SOA-ARG		③											
RELN	<i>i-cause</i>																				
INFLUENCE		①																			
SOA-ARG		③																			

지금까지는 분석 방법은 P&S-94의 틀에 따라 수동형이 첨가되는 문장의 분석에 관한 것이었다. 이 방법은 규칙이 지칭하는 것처럼 강압적인 방법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핵어문법 III이 수용하는 기제를 이용하여 강압어휘규칙을 사용하지 않고 수동형이 첨가된 문장을 분석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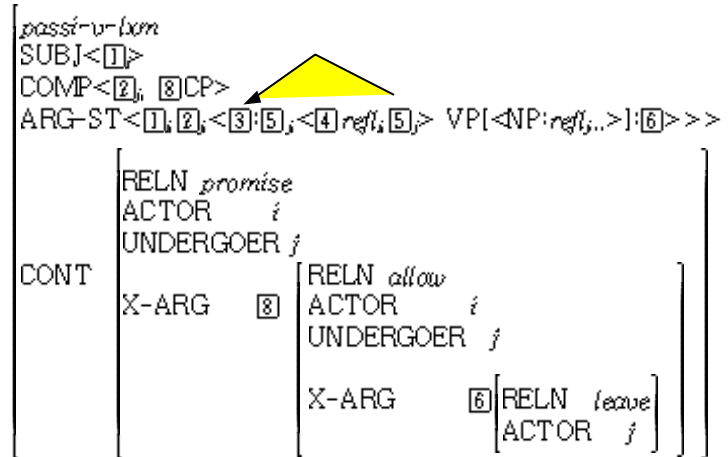
4.5. 개정통제이론의 적용

- (27) a. Lee promised Pat to be allowed to leave.
 b. Pat was promised to be allowed to leave.
- (28) a. Jim promised Mary_i to be allowed to get herself_i a new dog.
 b. Jim_i promised Mary to be allowed to get himself_i a new dog.
- (29) a. Leslie persuaded/asked the teacher to be allowed to leave early.
 b. *The teacher was persuaded/asked (by Leslie) to be allowed to leave.

위와 같은 문장은 수동형, 결속, 통제가 한 문장 내에 동시에 나타나는 문장들이다. P&S-94에서는 수동형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강압어휘규칙을 사용하여 임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핵어문법 III에서부터 수용하는 연계이론, 논항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통제이론은 위와 같은 문장을 이론 내적인 기제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27a)를 (30)으로 다시 쓴다.

(30) Lee_i promised Pat_j to be allowed to leave.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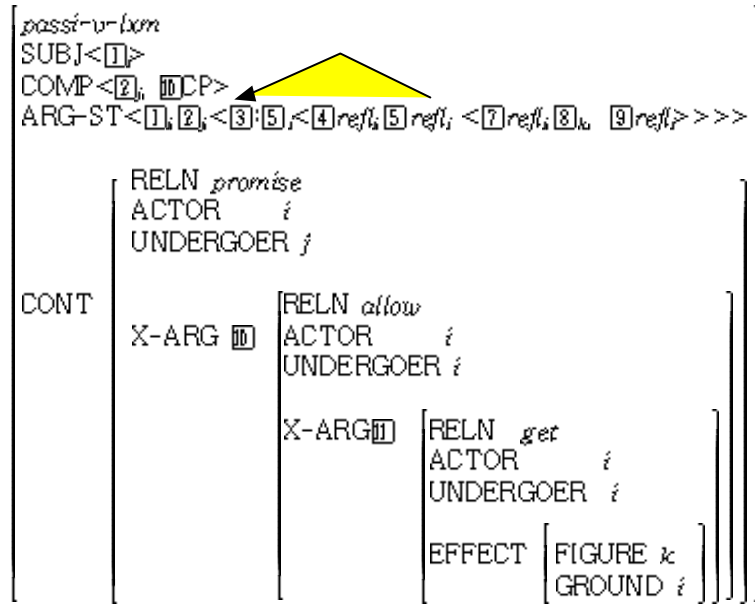


(31)에서 동사 *allow*가 수동어휘소로 파생될 때 (18)의 파생유형에 따라 동지 논항구조가 됨에 따라서 (31)의 논항구조는 그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편의상 화살표로 표시하고 동지표됨을 나타내고 있다. (31)의 *to be allowed*의 핵심 논항인 [3]:[5]는 UNDERGOER의 의미역할을 할당받는다. 그리고 선행하는 핵심 논항과 동지표의 조건을 만족시켜서 통제이론을 만족하게 된다. ARG-ST에서 [3]:[5]는 선행하는 동지표된 [2]에 의하여 통제된다. 그리하여 *to be allowed*의 통제자는 Pat_j가 되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된다. (28b)를 (32)로 다시 쓴다.

(32) Jim_i promised Mary_j to be allowed to get himself_i a new dog_j.

(32)는 'Jim 자신이 새로운 개를 얻도록 자신에게 허용한다고 하는 복잡한 상황을 상상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명백히 문법적이다. (32)를 AVM으로 나타내면 (3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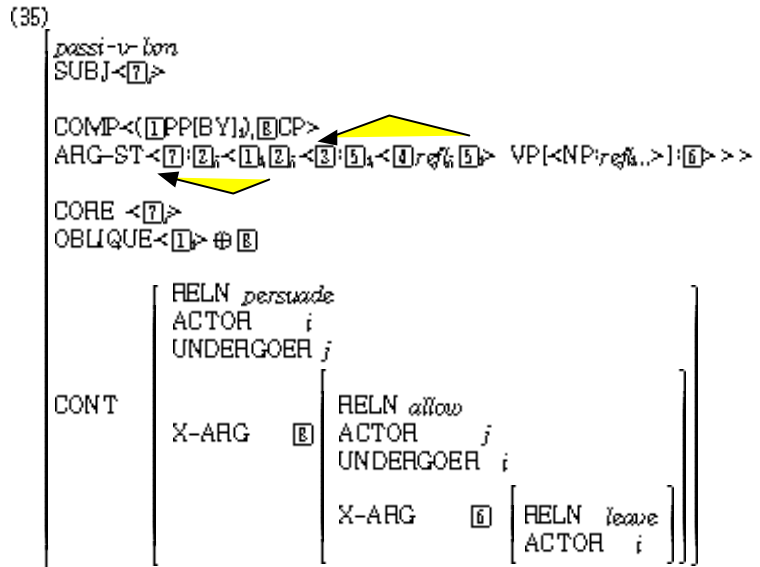
(33)



(33)에서 재귀대명사 [9]refl_i는 논항구조에서 선행하는 [7]refl_i가 동지표됨으로써 국부적으로 결속한다. 이 문장에서 get은 이중목적어를 소유하며 ditrans-re에 해당하는 동사이다. 그러므로 get이 CONTENT값에서 ACTOR, UNDERGOER, FIGURE, GROUND의 자질로 표시된다. FIGURE는 소유되는 객체(possessed)의 의미이고 GROUND는 소유자(possessor)의 의미이다. 이 관계에서 ACTOR와 UNDERGOER가 동지표됨으로 UNDERGOER에 해당하는 논항은 재귀대명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to be allowed에 해당하는 논항은 [3]:[5]인데 선행하는 핵심 논항 [1]가 통제자가 된다.

이제 영향형(*influence*) 유형의 persuade가 문장의 동사인 경우를 분석한다. (29b)의 문장을 (34)로 다시 쓰고 AVM으로 나타내면 (35)와 같다.

(34) *The teacher_j was persuaded (by Leslie) to be allowed to leave early.



(35)에서는 *to be allowed*의 핵심 논항에 대한 통제자 역할을 담당하는 선행하는 논항은 [7]이 된다. 그런데 이 논항은 핵심 논항이 아니다. *persuade*의 능동형 주어 논항인 [1]은 수동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성 논항이 되는데, 이 사성 논항은 핵심(*core*) 논항이 아니므로 통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이상에서 ARG-ST와 핵심 논항을 이용한 개정통제이론과 파생 수동어휘소를 이용하여 통제구문에서 결속의 재귀대명사와 수동의 구조가 함께 나타나는 문장을 분석하였다.

5.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ARG-ST가 허사적 대명사와 같은 의미적으로 관련이 없는 통사적인 논항과 대명사 탈락 언어에서 탈락한 대명사와 같은 통사적 항가자질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의미적 논항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구조로 가정하였다. P&S-94에서 수동문은 SUBCAT 목록을 주기적으로 치환하는 수동어휘규칙의 관점에서 다루었다. 그런데 이 논문은 ARG-ST를 기반으로 통제이론을 설명하였고, Manning and Sag의 수동

형의 보편적인 특징(universal characterization)을 수용함에 있어서 PRO에 대한 사용은 핵어문법이 기본으로 하고 있는 철학과 맞지 않기 때문에 구조공유의 개념을 이용하여 PRO의 자리가 *content*로 대체되도록 만들었고, 핵심(core)논항과 사성(oblique)논항의 자질을 핵자질에 포함하여, 통제자는 사성 논항이 될 수 없고 핵심 논항만 될 수 있도록 통제자의 조건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개정한 통제이론은 종전까지 세 가지의 유형으로 제시되었던 통제유형을 두 가지 관계로 통합하였고, P&S-94에서 강압어휘규칙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던 수동이 포함된 통제구문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참고문헌

- 박효명, (1998), 핵어문법론 X, 한국문화사.
- 안종기, (1994), 영어 동사 보문 구조의 통사-의미연구,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 정재창, (2000), 핵어문법에 입각한 영어 통제구문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Alsina, A. (1996). *The role of argument structure in grammar: Evidence from Romance* Stanford: CSLI Publication.
- Asudeh, A. (1998). *Anaphora and Argument Structure: Topics in the Syntax and Semantics of Reflexives and Reciprocals*. The University of Edinburgh: Center for Cognitive Science.
- Borsley, R. D. (1989). Phrase-Structure Grammar and the *Barriers* conception of Clause Structure, *Linguistics* 27, 843-863.
- Davis, Tony. (1996). *Lexical Semantics and Linking in the Hierarchical Lexicon*,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Haegeman, L. (1994).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publishing of blackwell Ltd.
- Ladusaw, W. A. (1988). A Proposed Distinction between Levels and Strata.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2 Seoul, Hanshin Publishing Co, 37-50.

- Manning, Christopher and Ivan A. Sag. (1998). Argument Structure, Valence and Binding. *Nordic Journal of Linguistics*
- Manning, Christopher and Ivan A. Sag. (1998). Dissociations between Argument Structure and Grammatical Relations, In Weibelhuth, Gert, Jean-Pierre Koenig & Andreas Kathol (eds.) *Lexical and Constructional Aspects of Linguistic Explanation*, CSLI, Stanford, 63-78.
- Manning, Christopher, Ivan A. sag and Masayo Iida. (1999). The Lexical Integrity of Japanese Causatives, In R. D. Levine and G. Green (eds.): *Readings in HPS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9-79.
- Pollard, Carl and Ivan A. Sag. (1994).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정재창

590-711 전북 남원시 광치동 720

서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전화: (063)620-0051

이메일: jcjung@tiger.seonam.ac.kr

122 경재창

그림 삽입해 주세요.
han_irum2.jpg